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개소식 및
국제학술세미나

- 한미일 독도문제의 동향과 앞으로의
정책제안 -

주최: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15층 소극장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개소식 및 국제학술세미나
- 한미일 독도문제의 동향과 앞으로의 정책제안 -

주최 :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소극장

프로그램

11:00~12:00 개소식 (사회 : 배위섭 교수)

환영사 : 세종대학교 총장

환영사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장

귀빈소개

축 사 : 동북아역사 재단 김용덕 이사장

축 사 :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 원유철 국회의원

축 사 : 정송학 광진구청장

연구소 설립 경위와 연구방향 설명 : 독도종합연구소장

간판식

12:00~13:15 : 점심식사

13:30~14:30 학술발표 1 (사회 : 임하나 교수)

발 표 : 독도관광 자원분석 및 개발 방향(김성섭 교수 : 세종대)

발 표 : 독도의 지형구조와 해양환경(박찬홍 동해연구소장)

14:30~14:45 : 휴식

14:45~16:15 학술발표 2 (사회 : 정태웅 교수)

발 표 : 해외에서 본 독도문제와 해법_미주한인사회의 역할과 통합(김필규 교수 : 미 Maryland 대학교 전 법대학장)

발 표 : 일본의 독도정책과 동향(박병섭 반월성사이트대표, 통역 : 정태웅 교수)

16:15~16:30 휴식

16:30~17:10 종합토론 (사회 : 호사카 교수)

발표자 전원, 최홍배 교수(한국해양대학교), 배위섭 교수, 임하나 교수, 정태웅 교수, 김종원 교수(이상, 세종대).

17:10~17:30

독도정책에 대한 제안_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방안 및 일체감 조성 방안 (호사카 교수)

17:30 폐 회

학술발표 2.2 일본의 독도정책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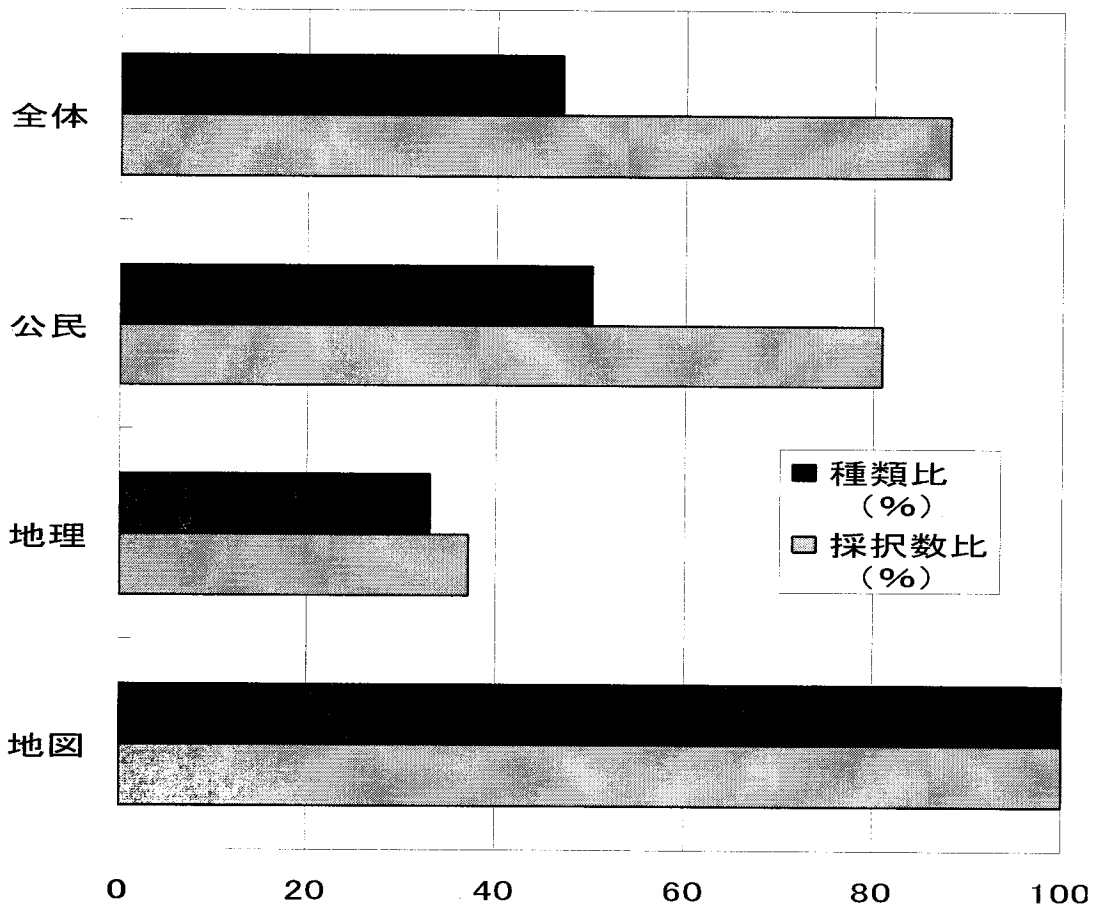
박병섭

1. 일본 문부과학성 (문과성)의 동향

작년 7월 문과성은 중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서를 개정하여 한일 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설서는 지리 교과서에 관하여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 (竹島)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개정됐다. 이 배후에는 많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이 있었다.

독도와 관련이 깊은 중학교 교과서는 ‘공민’과 ‘지리’인데, 특히 지리의 학습지도요령서가 개정되어 독도를 일본땅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처럼, 현재 공민에서는 81%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배우는데 비해, 지리는 불과 37%의 학생들만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中学教科書、独島記述



공민 교과서 채택수; 1,232,000권

| | 會社略称 | 獨島日本領 | 占有率(%) | 教科書名 |
|---|------|-------|--------|--------------------------|
| 1 | 東書 | ○ | 60.9 | 新編 新しい社會 公民 |
| 2 | 大書 | ○ | 13.6 | 中學社會 公民的分野 |
| 3 | 敎出 | — | 12.1 | 中學社會 公民 ともに生きる |
| 4 | 帝國 | ○ | 6.1 | 社會科 中學生の公民 地球市民をめざして 初訂版 |
| 5 | 清水 | — | 3.8 | 新中學校公民 改訂版 日本の社會と世界 |
| 6 | 日文 | — | 1.5 | 中學生の社會科・公民 現代の社會 |
| 7 | 日新 | — | 1.8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公民的分野 |
| 8 | 扶桑社 | ○ | 0.2 | 中學社會 新訂版 新しい公民教科書 |
| | | 集計 | 80.8 | (獨島, 日本領) |

○ : 日本領, △ : 所属不明, — : 記述無

중학교 지리 교과서 채택수; 1,250, 000권

| | 會社略称 | 獨島日本領 | 占有率(%) | 教科書名 |
|---|------|-------|--------|-------------------------|
| 1 | 東書 | △ | 43.0 | 新編 新しい社會 地理 |
| 2 | 大書 | △ | 34.3 | 中學社會 地理的分野 |
| 3 | 帝國 | ○ | 34.3 | 社會科 中學生の地理 世界のなかの日本 初訂版 |
| 4 | 敎出 | △ | 9.7 | 中學社會 地理 地域にまなぶ |
| 5 | 日新 | ○ | 2.6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地理的分野 |
| 6 | 日文 | △ | 0.4 | 中學生の社會科・地理 世界と日本の國土 |
| | | 集計 | 36.9 | (獨島を日本領) |

지도 교과서 채택수; 1,252,000권

| | 會社略称 | 獨島日本領 | 占有率(%) | 教科書名 |
|---|------|-------|--------|-----------------|
| 1 | 帝國 | ○ | 94.1 | 新編 中學校社會科地図 初訂版 |
| 2 | 東書 | ○ | 5.9 | 新編 新しい社會科地図 |
| | | 集計 | 100 | |

신 해설서에 입각한 교과서는 2010년도에 검정이 실시될 예정이고 2012년도부터 사용되는데, 문과서의 방침에 따라 지리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 일정표

| | | 20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2012년도 |
|-----|------|------|----|----|----|-----|----|----|----|--------|
| 중학교 | 검정 | 0 | | | | △ | | 0 | | |
| | 채택 | | 0 | | | | △ | | 0 | |
| | 사용개시 | | | 0 | | | | △ | | 0 |
| | 비고 | | | | | 1社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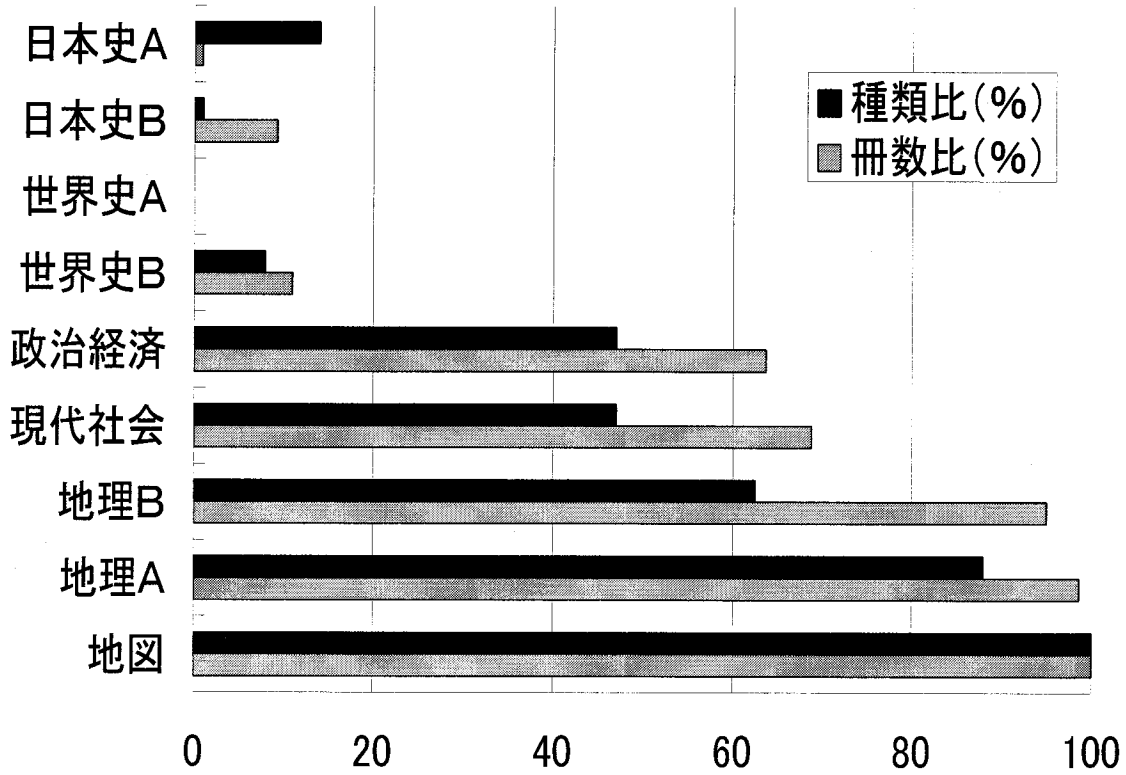
'년도'는 4월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에 끝난다.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의 지리 교과서는 다음 자료처럼 이미 97%의 학생 들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

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지리는 선택 과목인데 현대사회는 필수과목이다. 이 해설서가 개정된다면 영향이 크다.

高校教科書、独島記述



| 「地理 A」 | | | 2 單位 | 2008年度 | | | |
|--------|------|----------------|--------|---------|--------|-------|--------------|
| 順位 | 社名 | 教科書名 | 検定年月 | 採擇冊數 | 占有率(%) | 獨島日本領 | 獨島日本領冊數比率(%) |
| 1 | 帝國書院 | 高等學校 新地理 A 初訂版 | 2007.3 | 159,759 | 35.8 | ○ | 35.8 |
| 2 | 第一學習 | 高等學校 改訂版 地理 A | 2006.3 | 88,429 | 19.8 | ○ | 19.8 |
| 3 | 東京書籍 | 地理 A | 2006.3 | 63,623 | 14.2 | ○ | 14.2 |
| 4 | 帝國書院 | 高校生の地理 A 最新版 | 2006.3 | 48,863 | 10.9 | ○ | 10.9 |
| 5 | 二宮書店 | よくわかる地理 A | 2006.3 | 43,691 | 9.8 | ○ | 9.8 |
| 6 | 教育出版 | 新地理 A | 2006.3 | 18,118 | 4.1 | ○ | 4.1 |
| 7 | 二宮書店 | 高校生の新地理 A | 2002.3 | 18,113 | 4.1 | — | 0 |
| 8 | 清水書院 | 高等學校 現代地理 A | 2002.3 | 6,185 | 1.4 | ○ | 1.4 |
| 合計 | | | | 446,781 | 100 | | 98.6 |

2. 일본 외무성의 동향

외무성의 동향이나 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 (質問主意書)’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서로 파악할 수 있다. 답변서는 수상 명의로 내므로 그것이 바로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가 된다.

지금까지 독도를 주제로 한 ‘질문주의서’의 제출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다케시마’를 주제로 한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 년 | 회 | 종류 | 개시 날 | 질문 횟수 | 비고 | 특기할 질문 |
|------|-----|----|---------|----------|--------|------------------|
| 2005 | 162 | 통상 | 1/21 | 0 | | |
| | 163 | 특별 | 9/21 | 0 | 스즈키 당선 | 고유영토(39호) |
| 2006 | 164 | 통상 | 1/20 | 6 | | 불법점거(236호) |
| | 165 | 임시 | 9/26 | 6 | 아베 총리 | |
| 2007 | 166 | 통상 | 1/25 | 11 | | 홍보책자, 한일밀약(135호) |
| | 167 | 임시 | 8/7 | 0 | | |
| 2008 | 168 | 임시 | 9/10 | 2 | 후쿠다 총리 | |
| | 169 | 통상 | 1/18 | 10 | |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
| | 170 | 임시 | 9/24 | 18 | 아소 총리 | 나이토 저서(165호) |
| 2009 | 171 | 통상 | 1/5 | >27 | | |

http://www.shugin.go.jp/index.nsf/html/index_shitsumon.htm

이런 ‘질문주의서’를 통해 2005년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2006년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본정부의 공식견해가 됐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정부의 홍보책자 발간을 촉구하는 ‘질문주의서’가 제출되어, 그 효과 때문인지 2008년 봄에 외무성은 책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발간했다. 그 비용이나 발간 부수 등이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로 밝혀져 있으므로 ‘질문주의서’는 정보원으로서 유용하다.

독도에 관한 질문은 80건을 넘는데, 그 대부분이 수주키 무네오 (鈴木宗男) 중의원의원에 의해 행해졌다. 그는 일찍이 자유민주당에 소속하여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을 맡은 바가 있었고, 특히 북방영토문제로 활약했다. 그러나 2002년에 소위 ‘무네오 하우스’를 둘러싸고 알선 수뢰죄로 체포, 기소되었으며, 현재 그 사건은 최고 재판소(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수주키는 2005년에 부활 당선된 후 독도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외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들어 그가 질문한 내용과 질문 횟수는 다음과 같다.

- (1)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7회
- (2)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4회
- (3) 불란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4회
- (4) 한일 외상회담에 대해, 3회
- (5) 독도의 면적에 대해, 3회
- (6) 독도를 제외한 일본 법령에 대해, 2회

- (7) 정부의 홍보책자에 대해, 1회
- (8)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의 차이에 대해, 1회
- (9) 한국 국방백서에 대해, 1회
- (10) 나이토 세이추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대해, 1회

3. 시마네현의 동향

(1) '다케시마의 날' 행사

2009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2009년에도 정부관계자의 참석이나 축전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은 없었다.

기념행사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 회장인 야마야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의원이 '영토문제와 국정의 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야마야는 2008년 자신이 방문한 쓰시마(対馬)에 관해 "자위대 기지가 있는 이웃나라 땅을 한국 자본이 계속 매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로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영토. 영해이다.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가 제정하고 내년<2009년>까지 새롭게 한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시마네현을 자신의 기반으로 하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히사오키(亀井久興) 간사장과 가메이 아키코(亀井亜紀子) 참의원의원뿐이었으며 활기를 느끼지 못한 집회였다.

야마야 다음에 강연한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것을 확인하여 "국가도 국회의원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행사를 거행해도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다. 내년<2010년>부터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국회의원들에게 솔직히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호소했다. 그들의 초조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 '다케시마' 홍보 활동

- 출판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7年度』 2008.7
- '다케시마' 광고탑 등의 설치.
- '다케시마 강좌' 개최. 2008년도에 8번 개최, 2009년도는 4번을 계획.
- '고향 납세제도'를 이용한 연구활동 자금 모으기.

2008년 시마네현의 각 마을이나 시에는 5,000만엔 이상의 기부가 모아졌는데, 시마네현의 현 자체의 8개 사업에 대한 기부는 300만엔 이하였다. 독도관계 기부는 수십만엔 이하로 보인다.

(3)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활동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은 시모조 소장이 '實事求是'라고 칭하여 최근 반년동안에 3번 연재하여, 독도를 제외한 일본 법률문제를 다르거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21의 다와라 요시부미(俵義文)씨나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수기하라 다카시(杉原隆) 부소장은 '수기하라 통신'이라 칭하여 최근 반년동안에 3번 연재하여, 덴포 다케시마 사건(天保竹島事件)이나 메이지 시대의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 메이지 초기 일본인의 울릉도 진출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이 어렵다는 평이다.

4. 돗토리현(鳥取縣) '국토연구회'

2009년 2월 11일 돗토리현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토연구회'를 설립했다. 설립 총회에는 약 200명이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인사들이 강연이나 인사를 했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越夫) 전 경제산업장관 : 강연.

히로에 하지메(廣江弐) 자민당 돗토리현 간사(자민당 당선 7회)

우치다 히로나가(内田博長) 북방영토문제 대책협회추진의원(자민당 당선 2회), 이토 미쓰오(伊藤美都夫) 돗토리현 어협조합장(자민당클럽, 당선 2회)

연구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히로에 하지메

부회장 우에무라 다다시(上村忠史, 자민당 당선 3회)

간사장 후쿠모토 류헤이(福本竜平, 자민당 당선 1회)

히로에 회장은 2006년에 돗토리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관한 진정서(陳情書)나 '다케시마의 영토 확립을 위해 국가의 확고한 행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연구회가 앞으로 돗토리현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5. 독도 관련 집회

'다케시마의 날' 전후에 드물게도 일반 시민에 의해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행사가 3군데에서 열렸다.

(1) 출판기념강연회 '혼미한 시대, 이주모 (出雲)에서 해가 떠오른다'

주최: 인간자연과학연구소 (마쓰에 시)

시일: 2009.2.22

장소: 마쓰에시 구니비키편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부정하는 서적 『竹島=獨島問題入門』의 출판 기념회. 저자인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교수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녹화한 나이토 교수의 영상이 대회장에서 상영됐다. 참가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넘는 700명이상이 모였다.

(2) 한일 공동 심포지엄 '다케시마/독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최: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한국 아세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시일: 2009.2.21

장소: 도쿄 메이지(明治) 대학, 130명 참석

보고 1. 다와라 요시부미(俵義文)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2. 이신철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제안'

강연 1.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대화를 성립 시키기 위해'

2. 허영란 '독도/다케시마문제 재고'

(3) 집회 '다케시마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최: '일한병합' 100년 시민 네트워크

시일: 2009.2.14

장소: 도쿄 분쿄 구민회관, 50명 참석

보고 1. 와카미야 요시부미 '서울 다케시마문제 국제 심포지엄 보고'

2. 박병섭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냐 강탈한 영토냐?'

특기사항

일본의 한국인사회에서는 독도문제를 파하는 경향이 있다.

주일 한국 대사관 관아의 한국문화원은 정치문제를 다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모양이다. 또 일본과의 '우호'를 중요시하는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은 독도문제에 소극적이다. 민단 산하의 '한인역사자료관'이 여러 진통 끝에 2년전에 나이토 교수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유일한 예이다.

한국 KBS는 일본에서 '역사추적'을 방영하고 있는데, 독도문제를 다른 【금단의 땅 독도-하치에몬은 왜 처형당했나?】 만은 방영되지 않았다.

6. 論壇の動向

独島関連の論説(2008. 6-)

| No | 雑誌名 | 作成者・著者 | 備考(内容等) |
|----|-----------------------------------|----------|--|
| 1 | 正論 2009.5 | 濱口和久 | 竹島を売り渡す“知韓派”学者の怪しい素顔 |
| 2 | WEDGE 2009.5 | 下條正男 | 日本海が地図から消える? 韓国のでたらめ領土工作 |
| 3 | 世界 2009.4 | 和田春樹 | 韓国併合と日本 何をなすべきか |
| 4 |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 29 号 | 朴 炳涉 | 安龍福事件と鳥取藩 |
| 5 | プラン B、第 20 号 | 朴 炳涉 | 報告「竹島＝独島は固有領土か、強奪領土か」への 質問と回答 |
| 6 | プラン B、第 20 号 | 若宮啓文 | 竹島＝独島の 21 世紀的解決策 |
| 7 | 総合政策論叢 第 17 号 | 福原祐二 | 「竹島」関連言説の検討 |
| 8 | 新潮45 2009.3 | 山田吉彦 | 戦略的「竹島放棄」論 |
| 9 | 週刊金曜日 2009.2.20 | 俵義文 | 日本政府が竹島問題を教科書に載せたい理由 |
| 10 | 週刊金曜日 2009.2.20 | 李信澈 | 韓・日両市民の間に冷たい風を吹かせないために |
| 11 | 軍事研究 2009.3 | 高井三郎 | 竹島砲爆撃作戦は可能か |
| 12 |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 28 号 | 朴 炳涉 |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
| 13 | もう一つの世界へ 08. 10 | 半月城 | 竹島(独島)共同管理案に関連して 芹田健太郎氏の提案 |
| 14 | 明日への選択 08.11 | 岡田邦宏 | 対馬を「第二の竹島」にしてはならない |
| 15 | サピオ 08.11.12 | 佐藤優 | 「竹島」で二重基準を続ければ帝国主義化した ロシアに北方領土で攻めこまれる |
| 16 | 月刊 現代 08. 10 | 佐藤優 | 竹島、遙かなり |
| 17 | Jiji Top Confidential 08.10. 7 | 佐々木真 | 竹島問題に表れた日韓ディ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
| 18 | 社会科教育 08.10 | 磯山恭子他 | 小特集、社会科指導書「竹島問題」に思うこと |
| 19 | 月刊ウィル 08.10 | 渡部昇一 | 歴史に学ぶ「領土を守る方法」 |
| 20 | 月刊ウィル 08.10 | 中村粲 | やむなし、竹島の砲爆撃 |
| 21 | 月刊ウィル 08.10 | 上坂冬子・田中茂 | 国家の成立要素は領土・主権・国民 |
| 22 | 正論 08. 10 | 小田博士 | 「竹島記述」をめぐって韓国の内政干渉を許した舞台裏 |
| 23 | 統一評論 08. 10 | 「わが民族同士」 | 独島は我が民族の神聖な領土(2) |
| 24 | 統一評論 08. 9 | site | 独島は我が民族の神聖な領土(1) |
| 25 | 世界 08. 9 | 夏嶋泰裕 | 「竹島」記述に表れた文科省の右傾化 |

| | | | |
|----|-------------------|--------|---|
| 26 | 世界 08. 9 | 岡本厚 | 編集後記(不思議な国の、不思議な外交) |
| 27 | マスコミ市民 | 伊藤成彦 | 竹島問題の本質と解決 |
| 28 | 中央公論 08. 9 | 中西寛 | 日韓は近代国家制度の運用力を磨け |
| 29 | 読売クォーター | 浅野好春 | 李明博政権下で再燃した竹島問題 |
| 30 | 読売クォーター | 鬼頭誠 | 「竹島」と国際裁判例の動向 |
| 31 | Foresight 08. 9 | 黒田勝弘 | 決定版「竹島に興奮する韓国」の研究 |
| 32 | 月刊日本 08. 9 | 鈴木宗男 | 今こそ、竹島を交渉のテーブルに乗せよ |
| 33 | VERDAD 08. 9 | 武田文彦 | 竹島問題 |
| 34 | 明日への選択 08. 9 | 下條正男 | 「竹島問題」発信の好機を逃すな |
| 35 | 月刊日本 08. 9 | ミッキー安川 | 竹島問題の本質は韓国の国際法無知にあり |
| 36 | サピオ 08. 8. 20 | 大前研一 | 領土問題に「21世紀型決着」をつけシベリアを支配する「バーチャル大国」を目指せ |
| 37 | サピオ 08. 8. 20 | 黒田勝弘 | 「反日」ともなれば左右問わず挙国一致する韓国の激しくも切ない「独島発熱」 |
| 38 | 読売クォーター | 下條正男 | 韓国の新しい歴史教科書と竹島問題 |
| 39 | 正論 08. 7 | 下條正男 | 「つくる会」運動が物語るもの |
| 40 | 獨島研究、第4号 08. 6 | 朴 炳涉 |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
| | | |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
| 41 | 獨島研究、第4号 08. 6 | 内藤正中 | 竹島問題の問題点(日、韓国語) 日本外務省の「竹島」批判 |

出典：<http://www.kr-jp.net/toshokan/zasshi.html>

独島関連の書籍

| No | 図書名 | 作成者 著者 | 備考(内容等) | 発行年 |
|----|--|--------------|---------------|---------|
| 1 | 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と現代 歴史と国際法からの再検討 (編著者 笹川紀勝、李泰鎮) | 高崎宗司 | 文化財問題と竹島＝独島問題 | 2008.12 |
| | | ジョン・M・ヴァンダイク | 竹島／独島の法的諸問題 | |
| 2 | 竹島密約 | ロー・ダニエル | | 2008.11 |
| 3 | 竹島＝独島問題入門 | 内藤正中 | 日本外務省『竹島』批判 | 2008.10 |

出典：<http://www.kr-jp.net/toshokan/book-list.html>